

조물릿이 어머니 코코마에 대하여

계성초등학교

3학년

이 책을 접어 드는 순간 나는 제목을
보고 크게 놀랐다. '원숭이가 도대체
어떻게 조물릿을 만들지?' 라는 의문이

들 어 서 책 의 표 지 를 넘 기 고 그 안 쪽
 내 봉 을 차 근 차 근 히 읽 어 내 려 갔 다 .
 초 목 릇 은 카 카 오 공 이 란 어 느 한 공 에
 서 만 들 어 진 것 이 다 . 그 공 이 만 들 어 지
 기 위 해 서 는 꽃 에 다 른 꽃 의 꽃 가 락 가
 필 요 한 데 , 다 른 카 카 오 꽃 의 꽃 가 락 를
 떨 기 쓰 러 주 는 암 컷 벨 이 있 어 야 열 대 가
 나 온 다 . 그 런 데 꽃 은 저 절 로 누 오 는 게
 아 니 라 광 합 성 을 해 서 명 양 분 을 얻 어 야
 꽃 이 필 수 있 고 이 누 못 밧 을 망 치 는

가 위 게 미 에 알 을 남 고 이 게 미 를 두 께
 러 주 는 벼 림 파 리 의 공 도 조 금 이 나 다 나
 있 다. 물 론 영 양 분 을 제 공 하 는 알 도 중
 오 하 지 만 그 만 큼 밖 켜 세 서 나 온 두 기 들
 과 물 볼 진 달 해 주 는 중 기 도 중 로 하 다. 이
 쪽 기 에 구 명 을 과 서 달 공 한 수 액 을 먹
 는 쥔 잎 들 을 잡 아 먹 기 주 는 아 녹 도 다 뱅 이
 있 게 서 참 다 뱅 이 다. 으 도 다 뱅 기 없 겠
 다 면 아 아 도 카 카 오 열 에 는 나 지 알 앓 겠
 지? 땅 위 에서 알 이 라 고 하 면 땅 속 에서 는

백 리 라고 할 수 있다. 백 리 는 흙 속 에 서

두 기 돌 과 물 을 뱉 아 들 이 고 그 두 기 돌 은

바로 골 팡 이 가 댕 들 어 낸 것 이 다. 골 팡 이

는 팡 이 실 을 내 뱉 어 서 굵 은 동 식 들 을

분 해 하 여 자 기 가 쓸 목 기 돌 을 댕 들 어 낸

다. 이 때, 남 은 두 기 돌 은 나 두 가 쓸 수

있 다. 성장 한 나 두 가 나 보 려 면 열 대 가

필 요 하 다. 열 대 에 서 나 곧 세 가 나 두 를

만 드 는 데, 그 모 든 세 들 이 나 두 로 되 는

것 이 아 니 다. 스 디 어 원 숭 이 가 오 움 끝 은

도 나타난다. 원숭이는 카카오나무에서
 나는 열매속에 있는 달콤한 즙을 먹고
 씨는 뱉어 준다. 이런 방법으로 씨득이
 번식할 수 있는 것이다. 카카오나무는 여
 러 공생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. 망엇벌
 과 꿀, 벵통파리와 꿀, 아놀도다벌과 꿀
 기, 벌리과 공팡이 등기 있다. 자연이란
 항상 사랑들 세상과 비슷하게 적과 친
 구가 있어서 신기하다. 이런 신비한 생
 태계가 지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세계

항행복인것같다.가가오나무는우리가
 살고있는생태계의일부다.마직우리가
 타고자오면구할것이많다고생각한다
 비록아주작은지식이라고볼수있지
 만이덧진글을동해어떻게원숭이
 가초코끼리를만들게볼수있는지에대해
 궁금을풀수있었다.이런사소한
 것에도관심을가지고여러번넘어두면
 나중에생태계의비밀을발견할수있을
 지?

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초콜릿 바 하나
 나에 빌다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
 는지 배울 수 있었나. 하지만, 이제
 쿵쿵이 많이 보기에 힘들 수도 있게
 되나. 지금도 열대우림들이 정채한 속
 으로 사랑지고 있다. 우리 꼭르고 아름다
 운 행성 지구와 소중한 열대우림을 지
 키기 위해 내가 할 방법을 써 보겠다.
 나는 환경을 지미는 단체에 기부금도
 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

지	여		우	리		생	태	제	게		대	한		행	을		만	이	
일	을	수		있	다.	그	리	고		내	가		할		수		있	는	
일	게		대	하	여		알	아	보	고		실	천	을		해		불	것
이	다.		열	대	우	림		중		하	나	인		아	다	존		열	대
우	림	을		지	구	위		하	파	라	고	도		부	르	는	데,	이	
런			중	오	하	고		소	중	한		열	대	우	림,		그	리	고
우	리	게	게		초	콜	릿	을		죽	는		열	대	우	림	을		아
새	하	하	지		않	을	까	고											

계절은 달라도 할 건 많아요

계성초등학교

3학년

친구들이 “너는 무슨 계절이 제일
 좋아?” 라고 물어보면 나는 고민이 된
 다. 그 이유는 각 계절마다 할 수 있
 는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

다. 내가 읽은 책 '나의 봄, 여름, 가을
 , 겨울'을 쓴 작가도 각 계절마다 할
 일이 아주 많았던 것 같다. 봄에는 꽃
 이 피고, 여름에는 바다에서 놀 수 있
 고, 가을은 단풍이 들고, 겨울은 눈이
 내리기 때문이다.

먼저, 봄에는 꽃이 핀다. 봄이 되면
 우리 아파트 정원에는 목련, 모란, 튜립
 , 진달래, 은방울꽃, 민들레 등이 핀다.
 봄은 아름답고 생기있는 계절인 것 같다.

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, 나무에
잎이 돋는 계절이기 때문이다. 책에서는
토끼가 민들레를 먹는다고 나왔는데, 이
것을 듣고 민들레가 반가웠다. 그 이유
는 우리 아파트 정원에 민들레가 아주
많이 피기 때문이다. 민들레를 꺾으면
민들레의 줄기에서 하얀 즙이 나오는데,
나는 이것을 요리놀이를 할 때 꽃과
잎위에 뿌리는 소스로 사용한다.
여름은 덥지만 바다의 계절이다. 여름

이 되면 우리 가족은 바다에 거의 매
 번 가기 때문이다. 우리 가족은 제주도
 에 있는 협제 해수욕장에 간다. 거기
 가서 스노클링도 하고 소라게도 잡는다.
 나는 처음에는 소라게가 무서워서 잡지
 못하였는데 소라게의 등을 탁 치면 소
 라게가 쪽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어서
 이제 잘 잡는다.
 가을에는 단풍이 든다. 예를 들면 굴
 색은 붉은 빛을 내고, 초록색은 노란

빛을 내고, 빨간색 나뭇잎은 자줏빛을
 낸다고 작가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. 작
 년 2학년때 통합교과 과제물에는 나뭇
 잎 모아오기가 있었다. 나는 은행잎을
 많이 모아갔다. 하지만 친구들이 나보다
 많이 모아와서 서로 나뭇잎을 바꾸기도
 했다. 수업시간에는 나뭇잎을 분류하였다.
 크기, 모양, 색깔, 등 여러가지 기준을
 정해 분류했다. 가을은 나뭇잎 모으기 만
 해도 재미있다.

마지막으로 겨울은 추운 계절이다. 겨울이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연못이 언다. 그러면 나와 친구들은 그것을 깨서 얼음 조각을 다시 던진다. 그러면 그 얼음이 깨지면서 포르르 욱구슬 소리가 난다. 하지만 얼음 조각에 예쁜 눈 결정이 달려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관찰하고 녹인다. 눈은 결정을 모양은 별모양, 바늘모양, 나뭇가지 모양 등 모두 육각형이다. 나는 겨울 동안

색종이로 눈 결정 모양을 만들어서
 내 방을 꾸민다. 그러면 내 방은 겨울
 왕국 처럼 눈 결정으로 채워진다.
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는 재미있는
 놀이가 아주 많다. 하지만 나를 방해하
 는 방해꾼이 하나 있다. 바로 미세먼지
 이다. 나는 아름다운 사계절을 지키고
 재미있는 놀이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
 해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. 미
 세먼지는 우리가 차만 타고 다니고 에

너 지를 낭비 해서 생기는 것 같다. 미세
 먼지를 줄이려면 우리는 걸어다니고 에
 너지도 아끼고 식물도 많이 심어야겠다.
 아름다운 사계절이 계속 즐거울 수 있
 도록 말이다.

평화와 평등을 꿈꾸는 한 가족

계성초등학교

3학년

생명의 릴레이? 무슨 뜻일까? 사랑
의 바통? 평화, 평등? 이 책에서는
아흐메드라는 남자 아이가 라마단이라는
어떤 행사에 가게 된다. 그런데 그만 총

에 맞아 하늘 나라로 가게 된다. 아흐메드
 의 아버지는 아흐메드의 장기를 적인
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기부했다.
 아흐메드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, "저
 는 평화와 평등을 위해 한 발 다가간
 것 뿐입니다." 그 말을 듣자 나는 감동
 받았다. 전쟁 속에서도 어떡해 평화와
 평등을 꿈꿀 수 있을까? 나는 전쟁을
 적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
 나 끔찍할지 상상이 된다. 평화와 평등

을 꿈꾸는 사람들, 용기가 대단한 것
 같다. 이 책에서 나는 인상 깊은 말이
 있었다. “그럼에도 불구하고...” 아흐메
 드의 아버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실
 천했을 까? 아흐메드의 아버지는 적인
 사람들 입에도 불구하고 장기를 기증하였
 다.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으면서도 그
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까?
 전쟁속에서 희망을 찾아 꿈을 꾸고...
 아흐메드와 그의 아버지는 꼭 보석 같다.

보석은 사람들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을
 거고 빛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난다. 아
 흐메드와 그의 아버지도 전쟁속에서도
 희망을 꿈꾸며 평화를 위해 빛을 바래
 면서 산다. 왠지 아흐메드와 그의 아버
 지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평화와 평
 등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다. 물론
 전쟁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희망이 있
 고 평화와 평등을 꿈꾸겠지만 아흐메드
 와 그의 아버지처럼 그것을 반짝반짝

빛냈다.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반
 짝반짝 빛내지 못한 거다. 용기와 그것을
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있는 것
 같다. 이렇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
 키워줄 수 있다니 ㅁ ㅁ
 이 책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깨달
 았다. 첫째로는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
 사람들을 죽이며 희망을 없애주는 고통
 스럽고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.
 둘째로는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실

천 해 보 겠 다 는 것 이 다 . 어 렵 다 는 것 을 알
 지 만 무 조 건 포 기 하 지 않 는 것 은 아 닌
 것 같 다 . 이 책 에 서 난 민 캠프 가 족 들 과
 이 스 라 엘 사 람 들 이 적 인 것 처 럼 남 한 과
 북 한 도 적 이 다 . 누 구 한 명 이 라 도 아 흐
 메 드 와 그 의 가 족 처 럼 따 뜻 한 손 길 을
 내 민 다 먼 통 일 이 라 는 것 이 될 텐 데 ...
 ... 나 도 한 번 실 천 해 봐 야 겠 다 .
 사 실 은 아 흐 메 드 가 기 부 한 사 람 들 중
 한 명 과 아 흐 메 드 의 아 버 지 가 만 나 게 되

었다, 그 소녀의 꿈은 의사였다. 아흐메
 드의 아버지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
 보자 그 소녀는 아흐메드 오빠가 자신
 을 살렸듯이 자기도 아픈 사람을 살리
 고 싶다고 하였다. 이렇게 한 사람이
 한번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면 다른
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을 도
 와준다. 이렇게 적이면서도 그 사람을
 위해 희생해준 아흐메드가 참 마음씨가
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같다.

지구 에 이 런 사 람 이 많 아 지 면 많 아 질 수

록 지 구 는 더 발 달 되 고 평 화 로 울 거 다.

앞 으 로 나 도 아 흐 메 드 처 럼 계 속 실 천 하

고 훌 륭 한 사 람 이 되 어 사 람 들 을 도 와

주 고 싶 다.

책 을 다 읽 고 나 니 의 사 가 될 까 ? 라는

생 각 이 들 기 도 했 다 , 하 지 만 그 건 더

생 각 해 봐 야 할 것 같 다. 앞 으 로 나 의

미 래 를 위 해 노 력 하 고 또 노 력 할 거 다.

화 이팅 ! ♡ ♡